여러분이 다 깨쳐도 부처님은 한 부처님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자기 몸에서 고라는 거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어디 가서 털퍼덕 앉아도 하나도 걱정이 없고, 먼지 앉을까 봐 걱정 없고, 먼지가 묻을까 봐 걱정도 없고, 기생이 와서 안겨도 걱정이 없고, 내 마음은 물들지 않아. 취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저 사랑한다고 한 번만 안기면 그냥 붙들고는 죽자 사자 하고 그러니 사고가 안 나? 응? 벌써 낌새를 채지. 이러니 모두, 허허. 에휴, 에휴, 참! (대중 웃음) 여러분이 바보예요, 모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편리하고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랬더래요. 어떤 한 가련한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서 딸이 사는데, 그 딸이 시집도 못 가고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너무 착하게 하니까, 어느 스님이 가다가 참, 불쌍하고 안됐거든요. 마음으로나 뜻으로나 그냥 보시를 듬뿍 한 겁니다. 듬뿍 하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시집가고 거기서 아들 하나를 낳아 가지고, 그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을 해 가지고 살림을 다 해 나가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거는 진짜 행(行) 보시며 바로 마음의 보시가 그렇게 컸던 거죠.

여러분이 보시를 할 때 이쪽은 이쪽대로 병들게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병들게 하는 그런 마구니가 되지 마세요. 네? 이런다면 정말 이거는 여러 사람 죽이는 겁니다, 모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보시는 그게 아닙니다. 모두 내가 이런 게 (합장하시며) 다 보시지 보시 좋아하시지 마세요. (대중 웃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효 대사가 파계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보시인 것입니다. 원효 대사가 처음에, 예전에는 장질부사를 많이 앓아서 죽으면 송장을 원두막에다 갖다가 그냥 넣습니다. 넣고는 먹을 거 갖다가 넣고는 돌보지 않습니다. 갖다 버렸지.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 들어갔거든요. 컴컴한 데 거기 들어가서 터억 드러누워서 그냥 곯아떨어졌는데, 아주 목이 말라서 배는 고프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죽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주 무척 잘 아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거기에 장구벌레가 잔뜩 들고, 물이 그냥 하나 고인 데다가 지붕은 새고 그러니깐 그냥 전부 고였거든요, 썩어서. 그런 거를 맛있게 먹고는 터억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장구벌레가 우글우글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장구벌레를 물하고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구역질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자 구역질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하! 그때는 생각을 안 하고 몰랐고, 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었고, 내가 지금은 보고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이 탈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아예 이 해골바가지로 인해서 도를 깨쳤으니까 의상 조사는 의상 조사대로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당나라에 공부하러 안 갔던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은, 생각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생각을 낸 것도 아닌데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는 얘깁니다. 이것도 관문이 될 수 있고 이것도 화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화두를, 이거 배우기 전에 화두를 갖고 하지 말고, 내 몸뚱이를 화두로 알아라 하는 겁니다.

또 한번은 대안 대사가, 즉 말하자면 늑대 새끼가 죽어서 아, 좋은 데로 가라고 염불을 하려고 그러니까 갖다가 턱 놓더니 젖을 먹이더라 이거야. 그 죽은 데다 먹인 게 아니라 산 새끼한테다 먹이면서 이게 바로 천도다 이거야. 거기에서 또 그것도 화두가 될 수 있고 관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해 드리죠. 만약에 젖을 먹이는 거는 방편이고, 내가 그 의식을 갖다가 나한테다가 넣었다고 본다면, 둘이 아니라면 그 무명만 죽였지 바로 내가 된 겁니다. 내 속에 넣었으니 내가 된 겁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항상 그러죠. 좋은 데로 가게 하려면은 내 주인공에 넣으면 그대로다. 그대로 요리가 돼서, 벌써 거기서 한 바퀴 굴러 가지고선 천도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도 또 줄지 않죠. 넣어도 그건 체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자세히 떠먹여도 모르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그러니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 이 마음은 체가 없다. 의식 자체가 체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도리를 스스로 증득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관문이 될 수 있죠. 화두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애가도 불렀는데 "도끼 없는 도끼를 어느 누구가 자루를 맞춰 주랴? 그 자루를 맞춰 준다면 기둥 없는 기둥을 깎아서 하늘을 받치련만…."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것도 관문이 되고 화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도끼 없는 도끼의 자루를 맞춰 준다면 기둥 없는 기둥을 깎아 하늘을 받치련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자루를 맞춰 줬더군요. 아, 그러고선 하늘을 받쳤더군요. 그래서 신라가 그렇게 됐더군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고 있으니까 "원효 대사도 원효 대사답지 않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니까 "그 눈물 흘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소?" 했어요.

>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한 마음, 내가 제일이라는 당당한 마음이 아니라**
> **아주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항상 중심에다가 두십시오.**

여러분이 그 뜻을 잘 아신다면, 앞으로 아주 재빠르게,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역사를 좋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금 영국이나 서독이나 내가 알기로는 서독이나 또 미국 사람들도 많이 마음을 갈구하고 있어요. 아주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절마다 기복이고, 절마다 죄를 씌워 주고 있어요. 한 민족이면서도 한 불자면서도…. 가톨릭교, 기독교, 불교 이게 전부 불자지, 불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입니다. 좋은 말 해 주는 거를 교(敎)라고 하니 그러니 바로 벌레 하나도 불교 아닌 게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발로 몇백 번을 뛰어 봤자야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지금 세대에. 이 마음이 한 번 뛸 때는 저런 타의 국(國)에도, 국이라는 건 지금 시쳇말로는 혹성을 말하는 겁니다, 타국을. 부처님께서는 그때 모두 모르니까 타국이라고 그랬죠. 서천국이니 타국이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타국에서도, 타국 보살들 일체가 다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찰나찰나 들고 납니다. 우리의 한생각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뛰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된다면,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보살이며 진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부처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는 한 부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깨쳐도 부처님은 한 부처님입니다. 모두가 한자리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한 마음, 내가 제일이라는 당당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항상 중심에다가 두십시오. 중심은 여러분이 깨치지 못했으면 중심이고 깨쳤다면 중도입니다. 또 깨쳤다면 중용이고 깨치지 못했다면은 활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와 모두 한도량에 한 도반으로서 공부하시자는 거지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앉았을 때는 더 잘났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일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요.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할 것은, 여러분이 와서 용건을 얘기하고 그냥 대답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가세요. 왜냐? 그것은 비밀이니까 말로는 못 합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다 공부하신다면 내 속을 다 알아서 같이 아마 등장할지도 모르죠. 여기서 몸뚱이는 항상 말을 하고 보고 이러면서도 삼매에 드는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드는 것이 삼매가 아닙니다. 눈 뜨고, 그냥 치켜뜨지도 말고 내려 뜨지도 않는 도리가 바로 그게 삼매입니다. 그 도리를 말한 거지 진짜 눈을 그렇게 뜨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선이요, 일상생활에서 화두요, 일상생활에서 바로 중용이 나오고 그대로, 나 자신의 생활이 그대로 바로 삼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여기서는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나가도 하나로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나투는 거, 수없이 화하는 거…. 천백억화신이 다, 사람들이 산신을 원하면 산신의 모습으로 화해서 응해 주시고, 또 칠성을 원하면 칠성으로 모습을 나투어서 또 응해 주시고, 또는 독성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응해 주시고, 자꾸 몸을 화해서 보이는 그 모습 없는 모습이 자꾸 이렇게 화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응해 주신다. 그래서 삼십이응신이 응해 주신다. 이러는데 삼십이라는 거는 숫자로 말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불가사의한 법, 그거는 저런 혹성도 바로,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이치도 있지마는 만약에 내가 한생각을 하면 타국에 있는 보살들도 또 어떠한 부처님들도 다 한자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한생각에 한 찰나에 드셨다가 한 찰나에 나시고 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도리와 법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신다면 인간 된 도리에 정말이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됐다면 그쯤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죽은 생각이나 산 생각이나, 모습 없는 사람이나 모습 있는 사람이나 다 응해서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 일입니다. 건지는데 건지는 것도 공해서 내가 한 일이 없노라. 내가 한 일도 아니요, 내가 안 한 일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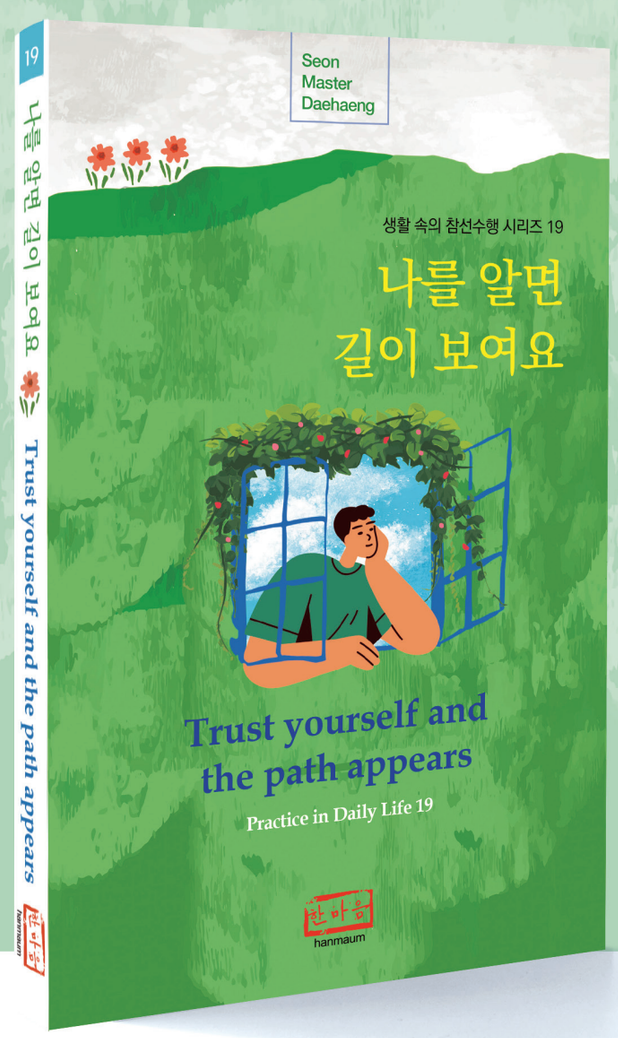
그러니 그분들 석가세존이나 단군 할아버지나, 우리네 육의 어머니, 아버지, 조상들이 전부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써,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조상은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조상까지도 둘이 아니다 이거야. 내 조상이 본래자성이거든요. 그러니 본래자성불 아버지하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식하고 상봉을 하십시오. 모두 상봉을 해야 합니다. 남북이 터져서 상봉을 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한 몸 안에 부(父)와 자(子)가 있으면 한 몸 안에서 따로따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와 자가 상봉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1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